

전남 명품 천일염 가치 전국에 알린다

도, 20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2022 소금박람회'

현지 생산·가공업체 등 참여 다양한 볼거리 제공

전남도가 해양수산부, 영광군, 신안군과 함께 전남 명품 천일염의 가치를 국내외에 알리는 '2022년 소금박람회'를 17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막했다. 박람회는 20일까지 이어진다.

개막식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이계호·서삼석·김원이 국회의원, 강종만 영광군수, 박우량 신안군수, 영광·신안 천일염생산자연협회장, (사)대한민국김치협회장, 도의원, 군의원 등이 참석했다.

개막식 후에는 한시명작 13인과 함께 전남 천일염 홍보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한 한식명장 MOU도 했다.

올해 14회 짬을 맞은 소금박람회는 천일염의 가치와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생산되는 국산 천일염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2009년부터 개최했다. 매년 천일염 최대 생산 시기이자 질 좋은 천일염이 생산되는 8월에 열린다.

'천일염의 가치를 잇다'라는 구호로 개막한 올해 행사는 최고의 천일염을 소비자에게 직접 선보이기 위해 전남 현지 생산·가공업체가 참여했다.

특히 올해는 기존 전시·홍보에서 벗

어나 위생적이고 안전한 천일염 생산 과정을 소개하고 천일염 생산 현장 실사를 중심으로 디자인한 전시·홍보관을 운

영, 시민들에게 다양하고 흥미있는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천일염이 지나는 시간과 현재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천일염 방향까지 모두 담은 천일염 스토리관 ▲천일염을 소재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건강관 ▲천일염을 구매할 수 있는 기업관 등 6개 관 48개 부스를 운영

한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산 천일염은 각종 미네랄 성분이 풍부해 건강식품으로도 각광받고 있다"며 "이번 박람회를 통해 천일염 생산자와 기업에 최상의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소비자에게는 질 좋은 소금을 만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1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2년 소금박람회'에 참석한 김영록 전남지사(가운데)와 이계호 국회의원 등 내빈들이 제품전시 홍보관을 둘러보고 있다. <전남도 제공>

캠핑문화 확산...전남 체류형관광 활성화

26일부터 해남서 '전남캠핑문화 박람회'...전시·체험 등 다채

캠핑이 새로운 여행 문화로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오는 26일부터 해남에서 '2022 전남캠핑관광 박람회'가 열려 관심을 모은다.

특히 전남도는 청정 자연과 캠핑 관련 인프라를 갖춘 전남지역으로 캠핑객을 이끌어 지역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에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전남도는 17일 "안전한 캠핑문화 확산으로 지역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26일부터 3일간 해남 오시아노 오

토캠핑장에서 '2022 전남캠핑관광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270여개 팀 2천여명의 캠핑객이 참여한다. 캠핑 장비 전시와 캠핑 체험 프로그램, 공연 등 다채로운 즐길거리가 제공된다.

첫 날인 26일 오후 7시 버스킹 공연을 시작으로 마술, 난타공연이, 27일 오후 6시부터는 유명 아이돌 가수 공연이 펼쳐져 엠지(MZ)세대 등의 뜨거운 호응이 기대된다.

현대자동차 카라반, 지프(Jeep) 오프로드카를 비롯해 캠핑 관련 용품 및 먹거리 등 다양한 전시도 준비돼 관람객의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가족과 친구, 연인이 함께 즐길 체험 프로그램으로 사람의 도시락 만들기, 캠핑용품 만들기, 캠핑 요리 콘테스트 등을 진행한다. 안전하고 올바른 캠핑문화를 위한 안전 캠핑 아카데미도 개최한다.

깨끗한 캠핑문화를 위해 플로킹 보물찾기 사회공헌 활동, 다문화가정 초청 캠핑행사 등 사회가치경영(ESG) 실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특히 캠핑관광 박람회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전남도와 한국관광공사, 해남군, 오시아노 캠핑장 운영사인 ㈜파라가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관광객과 참여자의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담당관제 운영,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전 자가진단점검 실시, 현장체온 측정, 방역계이트 설치 등 철저한 방역 대책도 마련했다.

김영신 전남도 관광문화체육국장은 "캠핑 박람회는 참여자가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만끽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2022-2023 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 '전남을 찾는 국내 관광객 1억 명, 해외 관광객 300만명 시대'를 선도하도록 캠핑산업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제1회 GMAF미디어아트 공모전...내달 16일까지 접수

광주시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도심 속 빛 축제의 장 '2022 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이하 GMAF)'을 앞두고 제1회 GMAF미디어아트 공모전을 개최한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 부대행사로 진행되는 공모전은 창의적인 글로벌 신진 작가 발굴과 시민들에게 예술적 즐거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부문은 비디오 아트, 실사 영상, 모션그래픽, 컴퓨터 애니메이션, 게임, 영화 등 영상으로 표현될 수 있는 모든 오디오비주얼 미디어아트 작품이다.

전문가 공모전은 17일부터 9월16일까지 접수하며 응모작품과 응모서류를 함께 이메일(gmaf2022@gmail.com)로 제출하면 된다.

일반 시민들이 쉽고 재밌게 참여할 수 있는 미디어아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60초 챌린지도 진행한다. 도시 속 다양하고 아름다운 색을 담은 60초 이내의 창의적인 영상을 찍어 개인 SNS에 게시하면 된다. 26일부터 9월16일까지 접수하며 최종 선발된 7명에게는 총 200만원 상당의 상품이 주어진다. /박선경기자

"연안여객선 공영제 조기 실현해야"

국회 심발전연구회 토론회서 국가 책임론 제기

국회 심발전연구회(대표의원 서삼석)는 한국심전진흥원과 공동으로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섬 주민의 이동권 강화를 위한 여객선 공영제 조기 실현'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섬 주민의 이동권 강화를 위한 정책'과 '연안여객선 공영제 도입 및 관련 제도 정비'를 주제로 각각 김태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운진흥지원단장과 노창균 목포해양대학교 해상운송학부 교수가 발표했다.

김태일 단장은 '해양교통 소외도서 제로화'를 위해 ▲일반 항로의 제도 개선 ▲보조항로의 공익성 강화 ▲대중교통화와 미래화 강화 등 3개 방향을 제시했다.

노창균 교수는 "해양사고 재발 방지와 안전 운항을 위한 수차례 법령의 제·개정 있었으나 대중 교통수단으로서의 공영제 도입되지 않아 안정성 확보가 곤란하다"며 "국민의 안전 증진과 이동권 제고라는 국가의 헌법적 책무 이행을 위한 공영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강제운 한국심전진흥원 이사를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학계·현장

전문가들이 "여객선 공영제 조기 실현은 섬주민 이동권 보장과 함께 관광객의 안전성까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시장성이 떨어져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국가 보조항로를 비롯해 작은 섬 교통 지원 체계까지 완전공영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연안 여객선 시장의 실패는 연안 여객선 이동인구를 비취볼 때 예견되는 일이란 지적이다. 국가보조항로에 보조금을 지원하지만, 결손금 발생을 보전하는 수준으로는 민간사업자에게 서비스 개선과 안전 강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기 때문이다.

한편, 신안군은 섬 주민 교통 지원을 위해 최근 6년간 170억원을 지원했다. 이미 열악한 지방 재정을 고려할 때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서삼석 의원은 "연안여객선 공영제 및 해상교통 소외 도서 제로화는 정부의 국정과제"라며 "섬 주민 삶의 불편사항 개선 뿐만 아니라, 주민과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도 연안여객선 공영제는 조기 실현시켜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진수기자

'광주 ACE Fair' 참가기업 추가 모집

전남정보문화진흥원 내일까지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17일 "오는 19일까지 국내 최대 국제 콘텐츠 전문 전시회인 '2022 광주 ACE Fair(에이스페어)'의 JCIA 공동관 전시부스 참가기업을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9월22일부터 25일까지 4일 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 진흥원은 전남글로벌게임센터·전남콘텐츠지원센터 공동으로 'JCIA 공동관 전시부스'를 운영한다.

모집 인원은 게임기업, 콘텐츠기업 각 5개사 총 10개사 내외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가 전남도에 등록돼 있고 시장 진출·상용화 단계의 콘텐츠 보유 기업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최종 선발된 참가기업에게는 ▲프리미엄 부스(기본 디스플레이 포함) ▲개별 시연 공간 제공 ▲국내·외 언론 대상 홍보 지원 ▲공동 홍보물 제작·배포 지원 등을 제공한다.

접수는 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참가 지원 신청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hjin@jcia.or.kr)로 접수하면 된다. /변은진기자

광주보건환경연구원, 추석 성수품 안전성 검사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17일 "이른 추석 명절을 맞아 안전한 식품이 유통되도록 이날부터 제수·선물용 식품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광주에서 유통되는 떡류, 한과류, 전류, 과일, 수산물 등 200여 건에 대해 식품별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

주요 검사항목은 ▲약과 등 과자류 및 식용유지류는 산가(기름 부패도) ▲동태전 등 즉석섭취식품은 식중독 원인균

▲채소·과일류는 잔류농약 340종 ▲수산물에는 동물용의약품 67종과 중금속, 방사능 등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부적합 긴급통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전국 유관기관에 즉시 알려 유통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시 보건환경연구원 조배식 식품의약품연구부장은 "추석 명절에 안전한 식품이 유통되도록 유해물질 정밀검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선경기자

방수제·바닥재·혼화제·천연 황토 코팅제
건물 보수제 전문 생산업체

아직까지 방수로 고민하십니까? 기술이 필요없습니다.

방수! 바닥! 직접 공사하세요!

적용현장 및 시공범위

옥상, 외벽, 지하실, 공장바닥, 주차장, 휴집, 물탱크, 양어장, 수영장, 화장실 타일, 기와집, 내구성 및 평활성을 요구하는 현장, 기타 방수를 요하는 모든 건축물

생산 품목

[DK-301] 강력접착 도막 방수제 / 드림탄²
 [DK-303] 상도코팅방수제(녹색,회색)셀프탄
 [DK-305] 무색침투도막방수제 / 드림데칼³
 [DK-307] 균열 보수제 / 다막스
 [DK-306] 수용성 투명 방수제 / 탐코팅
 [DK-308] 천연황토코팅제 / 황토리
 [DK-5000] 광택증진 & 오염방지코팅제 / 오염스름

특징

- 빗물은 막고 습기는 내보낸다
- 기술이 필요없다
- 숨을 쉬기 때문에 들뜨지 않는다
- 경제적이다
- 무독성 무기질 친환경 방수제다
- 습윤상태에서도 할 수 있다
- 미끄럼, 방지기능을 한다
- 욕실 및 화장실 타일을 들지 않고도 할 수 있다
- 특허 인증 신기술 공법이다
- 소비자가 인정했다

※전화 문의시 방수·바닥재 관련 책자를 보내 드립니다. (제품 구입시 시외 지역은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유시품에 주의하세요

시중에 검증받지 않은 방수제품들이 난무하여 소비자들을 현혹하여 판매 및 시공하는 피해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드림케미칼 코리아는 특허 인증 품질 보증업체입니다.

특허청

DRREAM CHEMICAL KOREA

한강을 생각하는 기업

드림케미칼코리아

DRREAM CHEMICAL KOREA

전국 대리점 및 판매점 모집(무담보, 무보증)

문의 : 080-362-7788

www.dreamchemicalkorea.com

CMYK